

| 해양사의 한 장면 |



추억 속의 해양대학

| 故 최영 | 시인

* 편집자 주 : 한국해양대학교는 진해 →인천→군산→부산 거제리 →동삼동 →현재의 아치섬으로 전전하였다. 진해와 인천에서는 불과 수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군산에서는 약 7년 정도 머물면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행히 군산뉴스(www.newsgunsan.com)의 <열린 광장>에 최영 시인이 '군산풍물기' 101-106면에 '추억 속의 해양대학 1-6'편을 게재했다. 최영 시인은 2011년에 작고하셔서 군산뉴스의 허락을 받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여' 여기에 전재한다.

나(故 최영 시인)는 1990년 봄 이덕의 처 장순례를 통하여 1950년대 초 군산에 해양대학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양대학을 말하려면 이시형李時亨이란 사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시형은 1936.4.7일 동경고등상선학교 기관과를 졸업한 후 조선우선郵船주식회사에서 9년간 원양상선을 타다가 광복 얼마 전에 하선합니다.

광복이 되자 이시형이 해기사 약 40명과 함께 <해원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는 군정청 운수부(교통부)의 책임자 Hamilton을 찾아가서 적산 해원양성소를 불하하여 관비학교를 설립케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그의 노력으로 진해고등상선학교가 허가되고 이시형은 교장에 임명됩니다.

한국해양대학은 이 날, 1945년 11월5일을 개교기념일로 이시형을 초대학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6세 때입니다. 그는 항해과와 기관과 각각 40명씩을 선발하여 1946년 1월 5일에 입학식을 하

였습니다. 약9개월 후인 1946년 8월 15일 <진해해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어느 날 해양대학을 해군사관학교(편집자 주: 당시 교명 해사대학)가 접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 왔습니다. 학생들은 반대했고 교수들은 추이를 지켜보고 있던 차에 러취 군정관이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결국 해군사관학교에 남기를 희망하는 4명을 제외하고 인천해양대학과 학생 100명을 편입, <조선해양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인천으로 가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날이 1947년 1월 30일이며 대학 관할권이 교통부에서 국방부(당시 통의부)로 넘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인천해양대학은 바로 3개월 전인 1946년 10월 1일 개교하여 해사국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항구적인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시형 학장, 교수, 학생들은 개인사물만 챙겨 들고 집단으로 진해를 출발하는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날 국방부 소속인 인천해양경비대 내 임시숙소인 월미도 용궁이라는 옛 요정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학당국은 인천 시내에서 교사校舍를 구하려 동분서주했으나 별 성과 없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침 용강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부대가 이동한다는 정보를 듣고 인천시장(부윤) 임홍채를 찾아가 양도해 줄 것을 간청하였지만, 거절당합니다.

일본학생과 공학이었던 인천상업고등학교가 일본학생들이 귀국하여 교실의 여유가 있다는 또 다른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교수와 학생 대표들이 선처를 부탁하려고 인천상고를 찾아 갔더니 교문은 아예 꼭 잠겨 있었고, <해양대학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만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반하여 인천시 당국과 시민들은 냉혹하리만큼 비협조적이었고 무관심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갈팡질팡했고 궁여지책으로 타지방 이전을 모색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이시형 학장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것이 군산이었습니다. 인천으로 올라오기 전에 군산시에 유치를 타진했었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군산은 곡창지역이란 생각도 해냈습니다. 이시형 학장은 고향이 군산에서 가까운 이리裡里 출신 김주년(기관과 2기)에게 친서를 주어 군산 시장(부윤)을 찾아가라 명합니다.

1947년 3월 21일 아침 김주년은 이리-군산間 통근열차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선배인 강우득 군산국민학교 교장을 만났습니다. 강 교장과 함께 군산국민학교와 나란히 서있는 군산시청(부청)을 방문합니다. 군산시청 2층 시장실에서 박봉섭朴鳳攝 시장을 면담합니다. 학생 김주년은 저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군산시장의 긍정적인 답을 얻습니다. 그는 강교장과 함께 김판술 의장, 강택수 군산고등학교 교장, 변광호 씨 등을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오후 군산시장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도 김주년 학생은 해대가 군산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해양대학 군산 유치를 의결했습니다. 김주년은 박봉섭 군산 시장의 친서를 휴대하고 학교로 돌아와 학장에게 복명합니다.

이시형 학장은 김주년을 끌어앉습니다. 그는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 같은 일들을 거치면서 해양대학 군산 유치 절차에 들어갑니다. 얼마 후 이시형 학장이 최창호, 이종민, 김재근 교수를 데리고 군산에 내려와 박봉섭朴鳳攝 시장을 만납니다. 시장(부윤)과 대학 측은

- 1) 2000만원 기금 모금
- 2) 군산국민학교 별관을 임시교사로 빌려주고, 장차 정미소와 미곡창고를 개보수 하여 교사 및 기숙사로 제공
- 3) 기숙사가 마련 될 때 까지 학생 전원은 군산시내 일원의 여관에

분산수용하고, 여관비는 군산시에서 부담

- 4) 교수의 사택은 고려여관으로 학장관사는 별도로 제공
- 5) 학생과 교수 및 그의 가족에게 1인당 하루 6흡의 백미를 지급한다. -- 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 합니다.

당시 학교 행정을 시청에서 관할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 협약을 보면 학교를 지어 주고 교수, 직원의 가족과 500여명의 학생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을 군산시에서 교사 봉급과 운영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사(부사)와 미군정고문관 등이 협의하여 자금 모금을 위해 군산 시내버스, 기차, 만월표 고무신 등의 가격에 해양대 지원금을 부과 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전라북도와 군산시민이 얼마나 해양대학 군산 유치를 갈망하고 노력했는지를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 해(1947년) 4월 중순 화물열차 몇 칸을 빌려 손태현이 20여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학교 집기와 비품을 싣고 군산에 내려와 장미동 하나오까花岡 정미소 창고에 짐을 풀니다. 얼마 후 교수와 학생들이 군산에 내려옵니다. 1947년 5월 5일 전북도 미고문관, 박봉섭 시장, 손원일 해군중령, 김범초, 이만수, 김관술, 이요한, 변광호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군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군산 초등학교 정문에 <조선해양대학>이란 간판을 내거는 현판식도 합니다. 멋진 제복을 착용한 200여명의 해양대학생들이 시청에서 역전까지 보무도 당당히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군산에 해양대학이 들어온 역사적인 광경을 시민들은 환호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연일 7교시의 강의와 해군 장교 공정식 소위에 의하여 군사 교육이 실시되었고 숙박비 등을 군산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중앙

에서 내려온 돈이 여유가 생겨 학생 1인당 월 1700원-1800원정도 비용을 보태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1947.6.3), 국방부는 황인식을 학장으로 임명합니다. 충남 공주출신 황인식 새 학장은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초대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친미파 거물을 학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 있는 인사가 학교를 이끌어야 한다는 미군정의 정치적인 의지가 반영 된 것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상선사관> 출신이 해양대학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고 전교생이 2층(군산국교) 옥상에 모여 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고 결국 주모자 몇 명을 제적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시형은 교수로 내려앉습니다. 해양수송물량의 증가로 해기사의 절대수가 부족하자 국방부(당시 통의부)는 1기생을 단체로 실습시켜 조기 졸업토록 하라는 지시를 보내 왔습니다.

1947년 8월 KBM 2호에 실습생 70여명을 태우고 군산을 출발 여수, 부산, 중국 상해 등 5개월 동안 원양실습을 하고 돌아와 다음해 2월 27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원양실습선 교수로 이시형이 자청하여 나가 심란한 마음을 달랠니다. 하지만 대학 발전을 향한 그의 꿈은 더욱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인식 학장은 1947년 9월 20일자로 조선학과를 신설하여 20명을 입학시킵니다. 그렇게 항해, 기관, 조선과를 보유합니다. 중앙정부와 시에서 주는 사업비와 각종 보조금이 원활히 수금되도록 하면서 신축교사 공사 추진, 교훈, 해대가, 해양가, 응원가, 과실점수 규정, 불침범 수칙 등을 만들어 학내 기강 체계를 마련합니다.

1947.11.16 학부형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 이사장에 박봉서, 부이사장에 정영기(서울), 고문봉, 이사에 최병선, 임영순, 정영기, 오경달(공

주), 남궁열, 이지우, 김주성(이리), 이영하, 운영규(부산), 감사에 장경환(서울), 구장환(서울), 간사에 박래진, 양현, 고문에 조선해양대학장, 군산시장, 해양경비대 군산경비사령관 등을 뽑아 학교운영의 기초도 다집니다.

1947년 11월 18일-19일 주야 2일 동안 군산극장에서 해양대학 연극부 창립공연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작〈젊은이들〉을 양백명 교수의 지도로 공연 했습니다.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인데 군산여고생들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해양대학이 군산에 온지 불과 6개월 만에 연극 부를 만들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1948년 1월 20일 해양대학이 군산에 온지 9개월 만에 신영동 새 청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구 경찰서에서 현 하나은행, 군고동창회관, 산업은행을 지나 께보선창으로 가다 보면 방콕가요주점과 서해장 여관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에 맞붙어 있는 적산 창고 일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옛 해양대학 식당자리입니다. 식당, 강당, 내무반을 연계하여 지었습니다.

그 옆에 해망동쪽으로 난 도로 옆 현 수협금암동 지점을 지나면 철로가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그 철로 안쪽에 「ㄱ」자 형으로 2층 교사가 지어졌고 식당과 교사 사이에는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900(?)여 평의 하나오까花岡 창고와 정미소자리에 마련한 -- 내무반 강당, 식당은 행정구역이 장미동이었고 운동장, 교사는 신영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옛 해양대학 시절을 신영동 3번지 시대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무반에 수용되어 수업과 군사훈련을 하면서 신영동 新 교사로 옮긴지 두 달 뒤인 1948년 2월 27일 악대가 창립됩니다. 이날은 제1기생 조기 졸업식 날이기도 하여 밴드가 동원된 졸업식은 멋과 품위를 높였습니다.

그해 5월 22일에는 군산이전(개교) 1주년 기념음악회를 해대 강당에서 엽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관람을 하게 됩니다. 군고나 사범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독점했었는데 해대가 군산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고교생보다 수재들이 모인 해대생이 좋고 멋진 제복은 더욱 가슴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연극, 음악회, 시낭송회 등 행사에 많은 군여고생들이 관람했습니다. 해대생과 군여고생이 월명공원 벚꽃 그늘에서 데이트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은 군고 어깨들이 집단으로 해대생들을 뺏고 형으로서 체면을 구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1948년 3월 17일자 군산신문을 보면 “조선해양대와 군중(군고) 학생 충돌문제는 양교 책임자 간에 원만히 해결했다.”란 기사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1948년 10월 1일 <조선해양대학>을 <국립조선해양대학>이라고 교명을 바꿉니다. 그 때를 전후하여 해양대학 회계가 사회문제로 야기 됩니다. 학교당국은 언론에 유감 표명과 향후 학교자금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1949년 2월 16일 황인식 국립조선해양대학장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합니다.

1949년 3월 5일 이시형 교수가 제3대 학장에 임명됩니다.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학장이 되어 금강국민학교와 동국사 사이 적산가옥 관사로 다시 집을 옮기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학장 취임 얼마 후 럭비부가 탄생합니다. 이시형 학장은 전교생에게 학훈을 공모함

니다. 손태현(항1기) 교수가 응모한 안이 당선되었습니다.

1. 우리의 이상은 인격의 완성
2. 우리의 생활은 진리의 탐구
3. 우리의 사명은 칠대양 제패
4.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埋骨
5. 우리의 학원은 명랑한 가족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埋骨--- 3면이 바다인 이 나라가 바다를 개척하지 못하고 은둔해온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면서 해양진출의 꿈을 위해 바다에서 죽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은 -- 소름이 돋습니다.

1949년 5월 5일 군산이전 2주년 (개교3주년)행사에는 얼마 전에 창단한 럭비경기, 연극, 웅변, 음악회, 가장행렬 등을 호화롭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자금 문제가 계속 꼬이면서 1950년이 옵니다. 전부터 북한이 국호를 조선이라 공식화 하자 <국립조선해양대학>은 <조선>을 빼고 그해 1950년 1월 1일 교명을 <국립해양대학>으로 다시 바꿉니다. 학교 이름이 네 번째 바뀌는 것입니다.

1950년 2월 28일 교지<바다>를 창간합니다. 고문 허동식, 손태현 교수, 학생회장 박민규, 문예부장 정형태, 편집위원 구완섭, 이재범, 염상만, 윤승기, 유덕준, 이범배, 등이 창간의 주역들입니다. 이시형 학장, 허정 교통부장관, 윤보선 상공부 장관의 축사, 26편의 논문, 33편의 문학작품 등이 실려 있는 217페이지 교지를 서울



오성당 인쇄소에서 펴냈습니다. 출판 비는 해운관련기관과 회사에서 47만원을 찬조 받고 재학생 전부 500원씩 각출하고도 모자라자 편집위원 이재범 학생의 부모가 모조지 15연을 기부하여 이를 충당하였습니다.

삼면 바다의 지리적 조건과 산업계의 여러 여건으로 보아 조국융성은 해운의 발전에 기대 할 것이며 해운의 발전에는 선박의 보유와 함께 우수한 선원 확보가 시급한바 상선사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해양사상을 지향하려하는 시기에 금반 우리해양대학 문예부에서 교지 『바다』를 발간함에 대하여 충심으로 기뻐하는 바이다.

원컨대 연찬과 연마의 결정인 우수한 작품이 기록되어 학업의 資質과 함께 해운계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귀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여 일언 창간 축사로 한다. -라는 허정 교통부 장관의 축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통부가 해운국을 관할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허정은 젊은 시절 상선으로 유학길에 올라 3개월 만에 미국에 상륙하였고 유학길의 바다가 너무 좋아 그의 호를 友洋이라고 스스로 지은 사람입니다.

이 창간호 교지가 6.25를 거치고 세월이 가면서 대한민국에 단 한권만 남아있는 희귀본이 되었으며 내가 운 좋게 복사 본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지 내용 중 1950년 2월 현재 교직원 명단을 보면

학장 이시형(터빈, 보조기관), 부학장 이재송(천문학해학, 측기학)
교수 송주영, 김용환, 정인태, 정해춘, 이범림, 구중희, 최춘호, 강신후, 신재두, 유병철, 문진원, 신상초(영어, 불어) 송용기, 이재신,
부교수 노상순, 이성복, 손태현. 허동식, 강경두, 김광숙, 강남수
강사 이환재, 정진중, 권명우, 이재희. 이기범, 맹교민, 백태진
무관 이인식, 전해만, 서무과장 김신봉, 연습선 기관장 이재술 등임

니다.

나는 이 기록을 보면서 신상초申相楚가 군산해양대학교수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영어, 불어를 가르쳤으며 특히 철학 강의는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고 당시 제자였던 홍동식 선생은 말합니다. 나의 중고 시절 사상계에 이승만 정권을 호되게 비판했던 신상초 교수는 참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양출신 신상초가 동경제대 법학부 시절 육당 최남선이 주최한 학병권유 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육당이 <조선 젊은이들의 학병을 독려>하는 연설 중 그는 불현듯 일어나서 “야! 띵떼끼야! 니 자식이나 보내라우! 씨방세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일본 형사에게 붙잡혀가서 혼 줄이 났고 결국 이 일로 강제로 징집됩니다. 그는 만주에서 탈출하여 팔로군에 가담, 다시 탈출하여 중국을 떠돌다가 광복이 되어 조국에 돌아옵니다. 그는 군산 해양대 이후 서울대, 성균관 대에세 교편을 잡으며 <사상계>,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위정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는 4선의원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 5월 4일 군산 이전 3주년(개교4주년) 행사에는 연극, 음악회, 웅변대회, 가장행렬, 문학행사 등을 호화롭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감찰위원(감사원) 감사에서 고질적인 학교 운영자금이 또 문제가 되어 이시형은 학장 1년 2개월 만에 부학장으로 강등 됩니다.

그리고 제4대 학장에 이시형 부학장의 동경고등상선학교 1년 선배인 황부길 교통부 해운국장이 군산 국립해양대학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부길 해운국장 겸 해양대학학장은 대일 선박상환문제 협상을 위해 1년간 일본출장 중이어서 부학장 이시형이 학장을 대행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남침하고 그들은 한 달도 못된 7월 19일 군산을 접수합니다. 이날 이전에 학교는 이미 휴교령이 내려졌고 학생 일부는 부산에 내려가 LST형 단양 호에서 피난과 실습을 하였습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해군에 입대하여 1년간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과 함께 군산에서 인민군은 물러갔습니다.

인민군이 밀고 넘어오자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국군은 유엔군과 손잡고 북진으로 돌아 섰으며 제공권을 장악하자 하늘에서 수 없는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피아간에 수10만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기간산업과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이 거의 초토화 되었습니다.

인공 2개월 10일 동안 군산의 공장, 항만, 관공서, 학교 등이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국립해양대학도 식당 일부만 남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교수나 학생들은 공회당에 수용되었거나 일부는 스스로 알아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서 식당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은 군대에 가 있었거나 전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부모, 친척, 또는 학생이 처형당한 예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교수와 학생들이 이념적으로 갈라져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사상검증을 위한 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되어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 연좌제 해당자를 걸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1951년 8월 3일자로 황부길 교통부 해운국장겸 해양대학장은 해운 업무만을 전담하기 위해 학장직을 사임합니다. 이시형은 1년4개월 만에 다시 세 번째 학장이 되었습니다. 1952년 3월 2일자로 조선학과를 폐지시키고 대신 다음해 (1953.4.5) 항해과와 기관과 각각 50명을 60명으로 증원합니다.

1953년 1월 19일 낙동강 하류인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280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 -여수 간 여객선 창경호의 침몰사건이 있었습니

다. 이 참사가 있는 지 6일 만인 1953년 1월 25일 조선미창 군산지점 여객선 행운환이 강경 - 군산 간 운행 중 충남 서천군 화양면 와초리 (지세울) 금강 하류에서 침몰되어 66명이 익사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으면서 국회는 진상 조사단을 만들어 당국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황부길은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1953년 6월 30일자로 7년4개월간의 해운국장직에서 물러납니다.

1953년 7월 1일자로 황부길은 두 번째인 6대 학장에 임명되고 이시형 학장은 다시 부학장으로 내려안습니다. 그 며칠 후인 1953년 7월 17일 휴전이 됩니다. 황부길이 군산에 내려오기 1년 전, 부산 해운국에 근무했던 해대 2기생인 장길상이 UNKRA에 근무하고 있던 Scanline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산에 있는 모교가 전쟁으로 완전히 소실되었는데 신축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자 상사이자 은사인 교통부 해운국장 황부길에게 보고를 합니다.

황부길 국장과 Scanline의 회담을 통해 UNKRA가 35만 불, 정부가 11억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국립해양대학을 신축하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두 사람은 광복직후 한일 선박협상 때 파트너로 일한 적이 있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산보다 商港인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전북일보 본사 창고 자료실에서 1953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문을 수없이 뒤졌습니다. 허나, 참 이상하리만큼 군산의 국립해양대학 부산 이전에 대한 기사를 발견 할 수 가 없었습니다. 당시 김영상 시장과 국회의원 변광호 그리고 군산시민은 무엇을 했던 말인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때 해대를 갓 졸업하여 상황을 훤히 꿰고 있는 올해 83세의 황동식(항4기) 선생은 말합니다. “전후 복구사업에 힘든 때여서 시청에

서 해대를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하십니다. 당시 2년생(기8기)이었던 올해 81세의 이창호 교수도 “전후 가장 강력한 기관인 UNKRA에서 결정하는 일을 道나 市에서 별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황부길이 학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시형 부학장은 이영철 관리과 주무 홍주윤 취사계장과 계원 1명을 데리고 신속히 부산으로 갑니다. 거의 7년 전 인천에서 군산에 내려 온 것을 경험삼아 부산 이사 준비는 착착 진행됩니다. 군산 거리에 시나브로 해양대학생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군산의 <국립해양대학>은 부산시 거제동 664번지로 옮겨갑니다. 이날이 1953년 10월 5일입니다.

군산에 왔던 <조선해양대학>이 <국립조선해양대학>, <국립해양대학>으로 바뀌어서 떠났고 후일 <한국해양대학>이 됩니다. 이시형이 세 번을 강등하고 후에 네 번째 학장을 하였으며 사후 제자들이 그의 동상을 교정에 세웠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문이 된 한국해양대학의 아버지로 추앙 받고 있습니다. 이시형의 동경상선학교 1년 선배인 황부길 학장도 정부와 학교를 오가며 학교를 키운 사람입니다.

한국해양대학의 태동과 발전사는 한국근대사의 시대성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시형 학장은 교지 <바다> 창간사에서 “해양을 제패制覇하는 자가 세계를 制覇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조5백년 유교적 정치 이념은 봉건적 사상을 육성하여서 해외진출의 진취적 기상이 결핍缺乏됐고 일제 침략의 원인이었다.

지금 나는 선조의 나태나 위정자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폐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해양국 건설에 국민의 전력을 경주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는 글을 읽으면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동식 선생(83세)은 신흥국민학교와 전주북중, 군고(22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49년 해양대에 입학 하여 1952년(향4기) 졸업합니다. 이창

호 교수는 전쟁 중에 남성고등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이창호에게 피난 차 이리에 내려와 수학교사를 하고 있었던 윤재술 교장 큰 아들이 해대 진학을 권했다 합니다.

물론 같은 학교에 다니던 그의 동생 (교장 작은 아들) 윤상우도 함께 해대(8기)에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1950년 제2기 항해학과 졸업생 중 李泳禧가 있습니다. 그는 뒷날 기자, 교수, 사회운동가 됩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와 <우상과 이성>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이론적 지침서로서 젊은 지성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때 '사상의 아버지'라 추앙 받던 그가 얼마 전 (2010. 12.5.)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이덕일 교수가 군산에 왔습니다. 그와 대화중 군산 해양대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는 "우리 큰 당숙이 수재여서 세브란스의전에 합격 했었는데 마음을 바꾸어 군산해양대학에 갔다."고 말합니다. 나이와 이름을 물었더니 85세 이성모라고 말합니다. 집에 와서 동창회 명부를 보았더니 1951년(항3기) 졸업생 명단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군산해양대학생들은 전국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950년도 군산 국립해양대학생들 출신고 별 자료를 보면 <경기17>, <경북15>, <중앙12>, <서울공11>, <배재11>, <보성10>, <경동7>, <한성7>, <양정9>, <서울5>, <경기상7>, <선린상5>, <서울공전5>, <사대부설4>, <중동4>, <경신 4>, <성남5>, <이리공16>, <전주15>, <군산10>, <전주사8>, <고창9>, <광주서10>, <순천4>, <경북 7>, <김천14>, <진주사4>, <대전7>, <대전사4>, <대전공6>, <공주5>, <청주5>, <오산 9>, <평양제2, 8>, <송도11>, <함남4>, <신의주동5>, <해주동5>, 등 4명이상 출신학교 내용인데 한국 최고 명문 경기고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이리공고 16, 전주고 15명이고 군고는 10명에 불과합니다.

한 때 이리공고가 전라북도에서 명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의 명문학교 이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재학생 총465명을 출신 도별로 보면 〈서울47〉, 〈경기66〉, 〈경북45〉, 〈경남26〉, 〈충북25〉, 〈충남 45〉, 〈전북64〉, 〈전남26〉, 〈제주 2〉, 〈강원 7〉, 〈함북10〉, 〈함남30〉, 〈평북30〉, 〈평남27〉, 〈황해15〉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산근교 출신 해대생들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이상호, 이성빈, 구재수, 김주년, 고병조, 박동선, 양구섭 장려옥 홍동식, 송병선, 송강섭, 정진원, 홍성윤, 김종근, 조재곤, 최병용, 강상우, 김현태, 서봉석, 이용구, 이중구, 채수부, 조덕곤, 김종화, 채원석, 윤상우, 고석복, 이창호, 유병철, 한달수 등 입니다.

군산의 해양대학 6년 7개월 동안 46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일생동안 군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살다가 갔거나 지금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추억속의 군산해양대학이 부산으로 떠난 지 57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더 가더라도 해양대학의 추억은 군산시사와 군산사람들 가슴속에 길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해양대학 편을 마치며 친절한 설명과 자료 일부를 제공해 주신 홍동식 선생께 감사드립니다.